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옛날의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근래에 자주 읽는 책으로는 지봉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과 성호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이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이 두 책이야말로 조선시대 '지식의 보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책이다. 조선의 역사·학문·철학·문학·인물에 대한 지식에서 온갖 풍속이나 사물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백과사전 같은 책인 셈이다.

'성호사설'은 성호의 해박한 지식과 실사구시적인 논리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다. 이 때문에 다산 정약용도 가장 좋아하여 즐겨 읽었으며, 그로 인해 다산은 성호의 학문을 계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문에 정진하여 조선 최고의 학자에 이를 수 있었다. 성호야 벼슬을 버

광주를 빛낸 대표적 인물

리고 일생을 재야에 은거하며 학문에만 생을 걸었던 학자였으나, 지봉 이수광은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살이를 했던 관인 학자였으며 박학한 지식인이었다. 사신으로 중국에도 다녀와 견문도 넓었고, 책이라고는 읽지 않은 것이 없어 그의 높은 지식은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이수광은 한때 3년 동안 전라도 순천부사라는 목민관 생활을 했던 인물이라서 서울 사람으로서 비교적 전라도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기도 했다.

순천의 옛날 이름은 '승평'(昇平)인데 이수광은 그곳에 있으면서 '승평지'(昇平誌)라는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밝혀 낸 귀중한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인물'(人物)이라는 항목을 정해 놓고 조선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인물' 난의 작은 제목에는 '절의'(節義)라는 세부 조항을 두었는데, 그 조항에는 국란에 목숨을 바쳐 '절'을 지키기 위한 인물로 광주의 제봉 고경명을 거론하였다. "고경명의 호는 제봉이니 광주 출신이다. 임진왜란에 고향 집에 있었다. 여러 고을에서 왜구가 쳐들어 왔다는 소문만으로 고을들이 무너진다

는 말을 듣고, 비분강개한 마음이 일어나 원근 지역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아 금산(鎭山)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패배하여 아들 고인후(高因孚)와 함께 전사했다(槩兵擄鎭山之賊 戰歿 與子因孚死焉)"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어 "큰아들 고종후(高從孚)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고,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진주(晉州)에서 왜적을 막다가 진주성이 함락되자 죽고 말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아야! 열사(烈士)다운 일이라! (父子三人 同死國事 古今無二 嗚呼烈哉!)"라고 하면서 세상에 없는 높은 절의라고 칭송하였다.

참으로 짧고 간략하게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찬란한 애국심을 의미 깊게 서술하였다.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죽어도 천하에 빛날 정의이고 의혼인데, 3부자가 함께 장렬한 죽음을 택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인가. 나는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호남의 절의정신과 광주정신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가 많다. 장흥고씨 3부자의 의병 정신과 애국심은 광주정신의 형성과 지대한 역할을 했을

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고씨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담양과 장흥 및 장성 등지에 모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그들은 또 얼마나 투철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고을을 빛나게 하는데 역할을 담당했는가.

더구나 고경명은 왜적을 물리치려고 전투에 참가한 장군이기 이전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당대의 수재였다. 게다가 학문도 높았지만 특히 시문학에 뛰어나 나라 전체에서도 크게 인정하던 대시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수광 역시 다른 곳에서 고경명의 뛰어난 시를 많이 거론하면서 일세의 시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독재시대에 민족·민중 시인들이 시로써 독재에 항거했듯이, 대시인 고경명은 몸으로 왜적에 항거하다 목숨까지 바쳤으니 정사가 길이 빛날 일이다.

금산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바친 고인후의 호는 학봉(鶴峯)이다. 그 후손들은 담양의 창평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학봉의 10대 종손(宗孫) 노천 고광순은 한말 의병대장으로 왜놈들과 싸우다가 왜놈의 총탄에 쓰러진 탁월한 애국자였다. 뿌리 깊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듯, 제봉의 후손에 노천 고광순이 있음은 더욱 빛나는 일이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아야



노경수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자유 구역 지정, 공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꼽혔다.

특히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건설, 상업 지역 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 무등산·영산강 등 주요 조망 및 경관 개선, 구 도심 쇠퇴와 도시 재생의 방향, 광주역 존치와 이전, 폭염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생태 도시 만들기, 생활 속 주민 체험형 문화 복지 시설 건립 등이 해결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동안 제기된 주제들 중에서 박종철 교수, 류영국 대표, 나주몽 교수 등이 지적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및 도시 재생에 적합한 압축 도시는 눈여겨 볼 만하다. 조만간 완공될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도시 체계를 재편하고 역을 중심으로 버스, 자전거, 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역(주요 버스정류장 포함)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를 역세권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다. 즉 광주의 공간 구조는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으로 보행 친화적인 교통 체계를 염두에 둔 이론이다. 상업과 업무, 주거와 여가 등 기능을 고밀 복합화하고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개인 승

용차 교통을 억제하여 보행자 위주의 교통 시설을 건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성과 정시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와 녹색 교통인 보행의 통합은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건강 도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최동호 교수가 지적한 "자동차 이용 극대화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친화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목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도시를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로 인식하고 "도시계획은 도시의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김재철 박사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향후 인공 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시티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예측과 조절의 기제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가 도시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윤연 교수의 제안처럼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계획으로 실현되도록 해야겠다. 광주형 도시기본계획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광주 지역 사회와 시민이 도시계획의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작동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시대가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광주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세워야 한다. 이는 2040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각종 분야별 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의 원칙과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의 위기 대응 과정에 등장한 비대면 도시계획의 방향은 감염병에 강한 건강 도시, 미래 복합 위기를 타개하는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지역 경제 활력성이 넘치는 도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도시계획의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한 정봉현 교수의 주장도 도시기본계획에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의 100년 대개인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례쾌히 많은 지면을 내어주시는 광주일보에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광주를 사랑하고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주 기고나 나갈 때마다 열정적인 격려와 제안을 해 주신 것이 16회를 이어오게 한 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학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연재에서 제시된 소중한 제안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꼼꼼하게 답아서 광주시의 미래 100년 대개인 그랜드 마스터플랜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기 고

평화의 인류 운명 공동체 함께 구축해 나가자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

사상자 수도 가장 많았다. 14년 동안 중국 작전 구역은 일본군 해의 병력의 50% 이상을 묶어 놓았고 150만 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거나 포로화함으로써 일본군의 병력을 동방전장에서 단단히 견제했다. 하지만 중국 국토의 절반이 일본군에게 짓밟혔고 사상자 수는 3500만 명을 넘었다.

'천지영웅기 천추상능연'(天地英雄氣千秋尚凛然)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선 영웅의 기개는 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늠름하다는 의미다.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는 그만큼 중국에게 중요한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도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도모를 산산이 깨뜨렸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넓은 전망을 개척해 나가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세계 평화 수호와 공동 발전 촉진에 있어서 중대하면서도 깊고 오랜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설립하여 전쟁 후 75년 동안 인류의 평화 및 발전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일부 나라와 정치권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흑백 전도의 역사 왜곡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해로우며 세계를 다시 혼란과 전쟁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 전쟁과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그 어떤 표현이든 중국 인민과 아시아 사람들의 극대한 분노와 호된 비난, 높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지켜 나가고 선양하면서 유엔이 재정비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며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중화 양국은 수천 년 동안 가까운 이웃이다. 근대 이후 양국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이에 함께 맞서 싸우는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중국 항일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졌 후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처지인 민족주의 당파들과 함께 항일 통일 전쟁을 구축했다. 현재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위험 앞에서 중화 양국은 호혜상생의 이익 공동체이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책임 공동체이며,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발생 이후 중화 양국 정상은 전략적 지도와 공동 노력을 통해 연합 방역 체제를 가장 먼저 구축했고, 신속 통로를 개통했으며 인적 왕래 제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국제 방역 협력에 앞장서고 전 세계 방역에 유익한 경험을 쌓아 주기도 했다. 호남 지역은 중국 자매·우호 도시와 서로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이웃으로서의 정과 친구로서의 의리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화 양국은 손에 손잡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며 방역 발전 교류 학습과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중국 각 지역과 호남 지역의 각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社 說

광주·전남 행정 통합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 구역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시도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엇그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도가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 간 소모적인 경쟁을 막을 대안으로 행정 통합과 단일 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전남도는 "광주·전남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다만 전남도는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례를 들어 시도민과 시도의회

등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견상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민간·군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 구역 통합은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규모의 경제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대구와 경북 역시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한창이다. 광역화로 몸집을 키워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이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광주·전남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지하게 통합 논의를 시작할 때다.

극우집회가 3·1운동? 이러니 믿을 수가 없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에 비유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는 극우단체의 집회를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언행은 일제에 목숨 걸고 맞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한 처사라는 생각도 든다.

김 위원장은 엇그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919년 스페인독감으로 13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폐허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국민과 함께하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해 집회 연기를 당부 하기는 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극우단체의 반정부 집회를 항일 독립운동에 비유하니 어이가 없

다는 것이다.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치켜세웠다든 주장도 나왔다. 극우단체들의 집회를 독립운동에 비인 것은 개천절 집회 자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광화문 집회라는 걸 그만 모르는 것인가.

김 위원장은 엇그제 국민의힘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5·18 민주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했던 것이 불과 한 달도 못된 일이다. 우리는 그때 보수 야당에 적잖은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쇼였던 것일까. 국민의힘은 최근 당명까지 바꾸면서 과거의 수구적 행태와 결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듯하다. 아무리 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우단체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어찌 독립운동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無 等 鼓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를 의미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말이 있다. 스마트폰을 신제 일부처럼 생각하고 다루는 사람을 일컫는다. 2015년 2월 2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이 말은 디지털 사회의 특징을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

지금까지 사회와 문명 발전에 따라 인류를 지칭하는 말은 다양하게 변해 왔다. 태초의 이성적 인류라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유희의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 도구적 인간을 함의하는 호모 파베르 등이 그것이다. 이보다 더 진전된 말도 있다.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정의를 추구하는 호모 저스티스, 정치적 견해를 매개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호모 폴리티쿠스 등이다.

하지만 포노 사피엔스는 기존의 인류를 규정하던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 현재 전 세계 36억 명이 미디어와 정보 창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보편화됐다. 온라인 뱅킹과 예약, 온라인 주문과 결제 등 일상 외에도 스마트폰은 모든 영역에

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포노 사피엔스는 세상의 비즈니스를 좌지우지하며 문명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다.

최재봉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저서 '포노 사피엔스'(2019)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친 신인류를 주목한다. 인문과 공학, 체계적인 데이터를 매개로 지난 10년 동안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최 교수는 "이제 시장 깊숙이 진입한 태초의 이성적 인류라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유희의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 도구적 인간을 함의하는 호모 파베르 등이 그것이다. 이보다 더 진전된 말도 있다.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정의를 추구하는 호모 저스티스, 정치적 견해를 매개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호모 폴리티쿠스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는 지금 이상으로 부와 마케팅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변화와 적응의 불가피성을 말해 주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는 신인류가 아니다. 벌써 우리들 곁에 와 있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